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이지원¹, 최하나², 정의정³, 김미^{4*}

¹예미담치과 치과위생사 ²전주기전대학 치위생과 교수, ³해전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⁴해전대학교 치위생과 강사

The Convergenc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i-Won Lee¹, Ha-Na Choi², Ui-Jung Jung³, Mi Kim^{4*}

¹Dental Hygienist, Yemidam Dental Clinic

²Professor, Division of Dental Hygiene, Jeonju Kijeon College

³Professor, Division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⁴Lecturer, Division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25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 목적에 따라 기술통계,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만족도의 관계만족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 중 관계만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에 대한 교수자의 지지, 라포 형성 등 관계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 치위생학,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find out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 survey was conducted for students from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a total of 256 questionnaires were finally analyzed.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relational of majo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variable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t is important to increase relationship satisfaction as a sub-factor of major satisfaction.

Key Words :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Dental hygienics, Convergence

1. 서론

치위생교육은 전문치과위생사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전문적인 치위생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구강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상실습은 학생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교육으로 임상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갖추어 졸업 후에 전문치과위생사로서

*Corresponding Author : Mi Kim (miii3@naver.com)

Received July 22,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22,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1,2]. 우리나라 치위생(학)과에서는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실무형 교육을 위하여 재학 중에 1회 또는 그 이상의 임상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3]. 그러나 진료현장에서의 실무 교육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임상실습에 임한 학생들은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여 학교생활과는 다른 구조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직장 내 상사나 동료와의 대인관계, 환자 관리와 의사소통 등의 문제들로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임상실습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임상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실무형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차에 따른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치과의료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4].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매우 연관성이 크다고 하였고[5],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6].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 전공 교과를 공부하면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즐거움과 미래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하여 형성된다[7,8].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가지게 하며[9],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진로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10]고 보고되고 있다. 치위생(학)과 학생이 치과위생사로서 자질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며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11].

회복탄력성이란 자신에게 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다[12,13]. 치위생(학)과 학생에게 회복탄력성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같은 힘든 상황을 극복하여 최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적인 발달과정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임상 현장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다[14,15].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전문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기초 에너지로 작용하여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 환경에 잘 적응하고 효율적인 임상실습 수행으로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치위생 교육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 임상실습을 통해

치위생학문을 습득하는 자연과학 분야의 실무학문이다. 임상실습 교육은 이론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사회적 융합력을 길러 치과위생사로서의 기본역량을 함양하도록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과학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회복탄력성은 인간 중심의 사고와 사회적 상황을 결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치위생학이라는 자연과학에 사회인문학 융합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선행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내적 요인들로 감정도동,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직무효능감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15,16]. 그러나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정서적 요인인 회복탄력성과 전공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조사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임상실습만족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1회 이상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년제 치위생(학)과 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80부를 배부하여 258부를 회수(92.1%)하였으며,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256부(99.2%)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년, 성적, 임상실습기관, 임상실습 횟수, 임상실습 기간을 조사하였다.

2.2.2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

송[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바탕으로 김[1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7), 전공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6), 교수-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관계만족(4),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인식만족(5)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17].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0.956$ 으로 나타났다.

2.2.3 회복탄력성(Resilience)

김 등[19]의 연구를 참고하여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RQT) 문항을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보완한 김[20]의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KRQ-53)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KRQ-53)는 총 53문항으로 자기조절능력 18문항(감정조절력(6), 충동통제력(6), 원인분석력(6)), 대인관계능력 18문항(소통능력(6), 공감능력(6), 자아확장력(6)), 긍정성 17문항(자아낙관성(6), 생활만족도(5), 감사하기(6))의 3개 하위요인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0.947$ 로 나타났다.

2.2.4 임상실습만족도(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임상실습만족도는 오[21]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임상실습내용(8), 임상실습지도(7), 임상실습환경(8), 임상실습기간(4), 임상실습평가(3)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0.931$ 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의 신뢰성 계수(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하였으며, 전공만

족도,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22세가 193명(75.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3년제 전공심화과정 112명(43.8%)과 3년제 3학년 79명(30.9%) 순으로 많았고, 학업성적은 평균 평점 2.5-3.4점(4.5만점)이 155명(60.5%)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기관은 대학병원·종합병원이 145명(56.6%), 치과의원 122명(47.7%), 치과병원 103명(40.2%) 순으로 많았으며, 실습 참여횟수는 2회가 117명(45.7%)으로 가장 많았다. 1회 임상실습 시 기간은 6주 이상이 165명(64.5%), 4주 75명(29.3%) 순으로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56)
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	20-22	193(75.4)
	23-25	59(23.0)
	≥26	4(1.6)
Grade	3-years 2nd	30(11.7)
	3-years 3rd	79(30.9)
	3-years 4th	112(43.8)
	4-years 3rd	35(13.7)
University grades	Lower than 2.4	20(7.8)
	2.5-3.4	155(60.5)
	Higher than 3.5	81(31.6)
Practice location	University&general hospital	145(56.6)
	Dental hospital	103(40.2)
	Dental clinic	122(47.7)
	Health centre	79(30.9)
	Others	3(1.2)
Number of practice	Once	56(21.9)
	Twice	117(45.7)
	3 times	42(16.4)
	More than 4 times	41(16.0)
Practice period	Within 3 weeks	9(3.5)
	4 weeks	75(29.3)
	5 weeks	7(2.7)
	More than 6 weeks	165(64.5)

3.2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

평균은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도 전체 평균은 3.71(±0.59)이었으며, 하위요인에서는 인식만족 3.77(±0.64), 교과만족 3.68(±0.65), 관계만족 3.68(±0.65), 일반만족 3.60(±0.69) 순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전체 평균은 3.54(±0.46)이었으며, 하위요인에서는 대인관계능력 3.67(±0.49), 긍정성 3.57(±0.56), 자기조절능력 3.39(±0.52)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42(±0.53)였으며, 하위요인에서는 임상실습 내용 3.73(±0.50), 임상실습지도 3.52(±0.59), 임상실습기간 3.38(±0.74), 임상실습환경 3.33(±0.66), 임상실습평가 3.15(±0.76)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Satisfaction,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56)			
Variable	Subfactor	Mean	SD
Major satisfaction	General	3.60	0.69
	Curriculum	3.68	0.65
	Relationship	3.68	0.65
	Perceived	3.77	0.64
	Total	3.71	0.59
Resilience	self-control capability	3.39	0.52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3.67	0.49
	Positivity	3.57	0.56
	Total	3.54	0.46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Practice contents	3.73	0.50
	Practice guidance	3.52	0.59
	Practice circumstance	3.33	0.66
	Practice period	3.38	0.74
	Practice evaluation	3.15	0.76
	Total	3.42	0.5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전공만족도는 연령 ($p=0.019$), 학년(<0.001), 임상실습 횟수($p=0.002$), 임상실습 기간($p=0.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은 '23-25세', 학년은 '4년제 3학년', 임상실습 횟수는 '4회 이상'일 때, 임상실습 기간은 '6주 이상'일 때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학년($p=0.01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년제 3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학년(<0.001), 임상실습 횟수($p=0.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은 '3년제 3학년', 임상실습 횟수는 '3회'일 때 높게 나타났다.

3.4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임상실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은 1.90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21.560, p<.001$).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만족도의 관계만족 ($B=0.198, p<.01$)이 정(+)적 영향을 주었고, 설명력은 36.1%였다.

Table 3. Differences of satisfaction,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6)										
Characteristics	Division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SD	F	p	M±SD	F	p	M±SD	F	p
Age	20-22	3.65±0.59	4.043	0.019*	3.53±0.45	1.262	0.285	3.39±0.57	2.146	0.119
	23-25	3.90±0.58			3.60±0.49			3.55±0.43		
	≥26	3.71±0.32			3.82±0.65			3.38±0.48		
Grade	3years 2nd	3.62±0.43 ^a	7.992	<0.001**	3.57±0.43	3.441	0.017*	3.51±0.52 ^{ab}	8.533	<0.001**
	3years 3rd	3.79±0.59 ^{ab}			3.64±0.44			3.61±0.53 ^b		
	3years 4th	3.56±0.61 ^a			3.44±0.48			3.25±0.54 ^a		
	4years 3rd	4.07±0.48 ^b			3.65±0.46			3.52±0.37 ^{ab}		
Number of practice	Once	3.75±0.51 ^{ab}	5.206	0.002**	3.59±0.45	1.677	0.172	3.53±0.54	3.386	0.019*
	Twice	3.57±0.59 ^a			3.48±0.47			3.35±0.52		
	3 times	3.85±0.62 ^{ab}			3.65±0.42			3.60±0.57		
	More than 4 times	3.93±0.58 ^b			3.59±0.49			3.34±0.49		
Practice period	Within 3 weeks	3.06±0.92 ^a	5.213	0.002**	3.47±0.43	0.254	0.859	3.00±0.71	2.336	0.074
	4 weeks	3.63±0.52 ^{ab}			3.58±0.45			3.48±0.51		
	5 weeks	3.71±0.57 ^b			3.54±0.41			3.29±0.35		
	More than 6 weeks	3.78±0.58 ^b			3.54±0.48			3.43±0.54		

^{abc}The same superscript letter denotes the same subgroup by post-hoc Scheffe test
* $p<.05$, ** $p<.01$, ***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	SE	β	t(p)	TOL	VIF
	(상수)	1.090	0.239		4.551***		
Major satisfaction	General	0.148	0.086	0.191	1.721	0.204	4.901
	Curriculum	0.181	0.097	0.205	1.873	0.209	4.791
	Relationship	0.198	0.073	0.241	2.730**	0.323	3.101
	Perceived	-0.076	0.083	-0.091	-0.916	0.254	3.944
Resilience	self-control capability	0.047	0.069	0.046	0.679	0.552	1.81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0.086	0.088	0.079	0.978	0.381	2.622
	Positivity	0.056	0.079	0.058	0.705	0.367	2.725

Adjusted R²=0.361, F=21.560(p<0.001), Durbin-Watson: 1.907

**p<.01

4. 총괄 및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1점으로 정 등[22]과 김 등[23]의 연구에서 3.51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인식만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과만족', '관계만족'이었으며, '일반만족'이 가장 낮았다. 이는 정 등[22]과 김 등[23]의 연구에서도 인식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치위생(학)과는 전문직을 배출하는 학과로 홍보되어 있고, 취업문제도 안정적이라는 점이 이미 사회적 인식이 되어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54점으로 이 등[15]의 연구에서 3.64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긍정성', '자기조절능력'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신체적·심리적 위협요인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24]. 하위요인의 자기조절능력은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및 원인분석력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이 신체적·심리적 위협요인에 직면했을 때 감정조절, 충동통제와 같은 자기 조절을 통해 힘든 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신 등[25]은 임상수행 능력은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내·외로 다양한 심리활동을 통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치위생(학)과 교수진과 임상실습기관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치과 임상현장이

더욱 원활한 직무환경으로 개선되는 등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을 통해 겪는 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2점으로 민 등[26]의 연구에서 3.44점과 유사하였으며, 허 등[27]의 연구에서 3.35점, 정 등[22]의 연구에서 3.29점으로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실습내용'이 가장 높았으며, '실습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는 흥미와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실습 종료 후 받게 되는 성적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 등의 명확한 근거 알 수 없고, 각 실습기관의 평가자 간 차이로 인한 성적 불공평성을 염려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실습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각 실습기관의 평가담당자에게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평가자 간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는 연령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 등[28]의 연구에서는 학년과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김 등[29]의 연구에서는 성적에 따라 전공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 일치하였다. 임상실습 횟수는 4회 이상, 기간은 6주 이상 일 때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임상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교육의 기회가 많을수록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전공에 더욱 만족한다는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 회복탄력성은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4년제 3학년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이 등[15]은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임상수행 능력도 향상되어 원활한 임상실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내·외 프로그램이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만

족도는 학년과 임상실습 횟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한 등[30]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횟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관계만족'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은 임상실습만족도를 36.1%로 설명하였다. 정 등[22]의 연구에서는 '인식만족'과 '교과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불일치하였으며, 조 등[3]과 박 등[6]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공만족도의 '관계만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만족은 교수-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수자-학습자 관계는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기술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와도 관련되어있으며[31], 또한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가 학습참여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32] 학습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교수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반적인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시에 교수자가 학생에게 충분한 관심을 갖고 지지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수자-학습자 간의 관계만족도가 높아져 임상실습 시 낮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를 뒷받침하는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는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생에 대한 교수자의 관심과 노력,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라포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로 연구대상자를 수집하여 나타난 결과로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치위생(학)과 3년제와 4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의 중요한 관련요인인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공만족도 향상과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1회 이상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년제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256부를 최종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전체 평균점수는 3.71(±0.59)점, 회복탄력성은 3.54(±0.46)점, 임상실습만족도는 3.42(±0.53)점으로 나타났다.
2. 치위생(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연령, 학년, 임상실습 횟수, 임상실습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5$), 회복탄력성은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임상실습만족도는 학년, 임상실습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3.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관계만족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36.1%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실습평가 만족을 높여야 하며, 낮은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수자의 관심과 지지, 교수와 학생 간의 라포 형성 등 사회인문학적 접근으로써 관계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J. Han (200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132-146.
- [2] I. S. Kim, Y. K. Jang, S. H. Park & S. H. So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37-345.
- [3] M. S. Cho & C. S. Ki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levels of education and clinical practice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5), 649-657.
- [4] H. H. Min (2019). Influencing factors of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9(4), 525-533.
- [5] M. K. Jeong & J. Y. Lee (2012).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6), 1241-1249.
- [6] J. H. Park, H. J. Song & B. Y. Lee (2018). The influences of ethical propensity, self-esteem and clinical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261-269.
DOI : 10.15207/JKCS.2018.9.6.261
- [7]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1(1), 7-20.
- [8] Y. J. Song & G. P. Cho (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4), 355-374.
- [9] I. O. Moon & G. W.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 [10] Y. S. Kang & S. K. Hwang (2013).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7), 3301-3309.
- [11] M. J. Chae & H. J. Jung (2016).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3), 213-222.
- [12] S. S. Luther, D. Cicchetti & B. Becker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13] W. Y. Shin, M. G. Kim & J. H. Kim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 [14] L. J. Thomas & S. H. Revell (2016).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36, 457-462.
DOI : 10.1016/j.nedt.2015.10.016.
- [15] J. W. Han (2018). The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the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7(4), 5-27.
DOI : 10.35605/jss.2018.12.27.4.5
- [16] J. Y. Kim (2018).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occupational self-efficac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269-276.
- [17] Y. J. Song (2013).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 [18] S. W. Kim (2018). *The influenc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otivation for early school education major choice and their career satisfaction on career maturity*. Master's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19] S. G. Kim & E. S. Do (2019). A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8), 231-239.
- [20] J. H. Kim (2011). *Resilience*. Seoul : WISDOMHOUSE.
- [21] H. K. Oh (2018). *Effects of the recognition of oral hygiene, psycho-social factors, and conditions of clinical practice on willingness to work as dental hygienists*. Doctoral dissertation. Shamyook University, Seoul.
- [22] M. K. Jeong & J. Y. Lee (2012).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6), 1241-1249.
- [23] S. G. Kim, Y. K. Koo, M. A. Jeong (2012).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8), 248-255. DOI : 10.5392/JKCA.2012.12.08.248

- [24] S. H. Kwon & S. Y. Lee (2010). An analysis of kindergarten teachers' resilience.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7(2), 137-157.
- [25] M. J. Shin & Y. E. Chun (2018). Convergence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19-32. DOI : 10.15207/JKCS.2018.9.2.019
- [26] H. H. Min, H. J. Kim & H. J. Lee (2018). The effect of ego-resilience, family support and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3), 411-421.
- [27] N. S. Heo & Y. H. Lee (2018). Study about the 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3), 399-410.
- [28] G. O. Jung, G. Y. Choi & J. Y. Bae (2013).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1), 61-68.
- [29] M. N. Kim, Y. M. Heo, H. J. Kim & Y. S. Ahn (2015). Effect of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1), 81-89.
- [30] Y. K. Han & H. H. Kim (2015).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image of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4), 457-464.
- [31] N. H. Kim & J. B.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mediated by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academic engagement: differences in the meaning and roles of teacher support and 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4), 763-789.
- [32] N. M. Kim & H. W. Kim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eachers' autonomy support, learner's psychological capital, cognitive learning strategy and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engage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759-781.

이 지 원(Ji-Won Lee)

[정회원]



- 2008년 8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14년 2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예미담치과
- 관심분야 : 치위생학, 보건학
- E-Mail : dm9449@naver.com

최 하 나(Ha-Na Choi)

[정회원]



- 2008년 8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1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전주기전대학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보건학

· E-Mail : calli-chn@hanmail.net

정 의 정(Ui-Jung Jung)

[정회원]



- 2006년 8월 : 경희대학교 의료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학과(박사수료)
- 2010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보건학

· E-Mail : uij2@hj.ac.kr

김 미(Mi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치위생학석사)
- 2019년 2월 :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치위생학박사)
- 2018년 8월 ~ 현재 : 혜전대학교 치위생과 강사

· 관심분야 : 치위생학

· E-Mail : miii3@naver.com